

조사보고서

2019-4

2019년 4/4분기

기업경기전망조사 분석결과

2019. 10

1. 조사의 개요

1. 조사목적

- 여수지역 제조업체의 경기전망을 조사·분석하여 기업의 경영계획 및 정부의 경기 대책 수립을 위한 참고자료로 제공하는데 있음.

2. 조사대상 기간, 조사기간, 조사방법

- 2019년 3/4분기(7, 8, 9월) : 실적기간
- 2019년 4/4분기(10, 11, 12월) : 전망기간
- 조사기간 : 2019. 9. 16. ~ 2019. 9. 27. (휴일제외 10일)
- 조사방법 : 설문지 조사

3. 조사대상

- 여수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상시 종업원 15인 이상의 제조업체 188개사
- 응답개수 : 68개 (설문지 회수율 : 36.1%)

4. 조사내용

- 전반적인 체감경기(경기실적 및 전망)
- 경기 변화에 따른 기업 부담과 대책 상황 등

5. 집계·분석

- 회수된 조사표를 각 항목별로 집계·처리

6. 기업경기 실사지수(BSI)의 작성방법

- 전반적인 경기조사 및 항목별 평가 조사에 대해서는 조사대상 기간의 실적과 예측을 각각 전 분기 및 전년 동기와 대비하여 호전(상승, 증가), 악화(하락, 감소)로 표시하게 한 후 이를 지수화 하였음.

즉, 기업 경기 실사지수(BSI)는 다음 산식에 의해서 작성하였음.

$$\text{기업경기실사지수(BSI)} = \frac{\text{증가(+)}\text{표시업체 수} - \text{감소(-)}\text{표시업체 수}}{\text{총 유효 응답 업체 수}} \times 100 + 100$$

※ BSI = Business Survey Index (0 ≤ BSI ≤ 200)

- 따라서 BSI의 기준치는 100이며, 100을 초과할 때는 호전(상승, 증가)으로 표시한 업체가 악화(하락, 감소)로 표시한 업체보다 많음을 나타내고, 100 미만일 때는 그 반대를 나타냄.

II. 2019년 4/4분기 기업경기 전망

1. 종합전망

가. 개황

- 여수지역에 소재한 188개 제조업체를 대상(설문지 회수 : 68개, 회수율 : 36.1%)으로 2019년도 4/4분기 기업경기전망조사를 실시한 결과, 기업경기 전망지수(BSI)는 '70.6'으로 조사되었다.

나. 항목별 경기전망 지수

【종합 (N = 68)】

구 분	항 목	전체	
		2019년 3/4분기 실적 (전 분기 대비)	2019년 4/4분기 전망 (전 분기 대비)
체감 경기		69.1	70.6
매출액	내수	73.5	77.9
영업이익	내수	73.5	77.9

【석유화학 연관업종(N=39)】

구 분	항 목	전체	
		2019년 3/4분기 실적 (전 분기 대비)	2019년 4/4분기 전망 (전 분기 대비)
체감 경기		66.7	71.8
매출액	내수	69.2	84.6
	수출	82.8	82.8
영업이익	내수	74.4	84.6

【일반기업(N=29)】

구 분	항 목	전체	
		2019년 3/4분기 실적 (전 분기 대비)	2019년 4/4분기 전망 (전 분기 대비)
체감 경기		72.4	69.0
매출액(내수)		79.3	69.0
영업이익(내수)		72.4	69.0

2. 설문 결과 분석

- ◆ 2019년 4/4분기 기업경기전망지수(BSI)는 ‘70.6’로 조사되었다.
- ◆ 이는 기업경기 체감지수 기준 값(前분기 대비 다음분기의 기업경기 체감이 동일함을 의미하는 기준 값)인 100보다는 작은 값으로 4/4분기의 체감경기 전망이 ‘부정적’인 것으로 조사되었다.
- ◆ 조사결과에 따르면, 2019년 4/4분기 기업경기전망지수(BSI)는 ‘70.6’로 조사되었는데, 이 수치는 前분기(3/4) 실적(69.1)과 비교했을 경우에는 1.5포인트 높은 수치로 前분기 대비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체감경기에서는 여전히 ‘부정적’인 수치이다.
- ◆ 작년 4분기부터 조사한 그간의 분기 별 체감지수를 보면, 80.9(2018년 4/4분기) ⇨ 84.3(2019년 1/4분기) ⇨ 98.6(2019년 2/4분기) ⇨ 89.4(2019년 3/4분기) ⇨ 70.6 (2019년 4/4분기)로서, 꾸준히 상승하던 기대심리가 올해 3분기를 기점으로 2분기 연속 하락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체감 경기에 대한 현재의 바로미터를 예상할 수 있다.
- ◆ 이는 종래의 석유화학 신·증설에 따른 긍정적 상승 동력이 크게 작용하였으나, 올해 3분기부터는 석유화학 기업의 영업 이익률 하락, 10년 만에 최저 가격에 형성된 에틸렌 가격, 미·중 간 무역 분쟁 등의 영향에 따른 수출부진과 함께 곧 완공되는 에틸렌 공장 가동으로 인한 공급과잉에 대한 우려도 세계경기 하락과 맞물려 기대심리에 악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.
- ◆ 또한 석유화학연관업종과 일반 업종을 분리하여 분석한 결과, 석유화학연관업종에서 지난 분기를 기준하여 4/4분기에는 다소 호전될 것이라는 기대치가 상대적으로 높게(5.2) 조사되었다. (일반 업종의 경우 오히려 3.4포인트 하락)
- ◆ “2019년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을 어떻게 전망하십니까?”라는 질문에 “정부전망치(2.4~2.5%)이하(44.1%)” > “정부전망치 수준(33.8%)” > “2%이하(22.1%)”로 조사되었는데, 지난 2/4분기에 동일한 조사와 비교 시, 정부 전망치의 기대수준보다 부정적으로 낮게 전망하고 있다.
 - ※ 2019년 2/4분기의 정부 전망치와 동일 수준 : 62.0%, 4/4분기는 44.1%
- ◆ “귀사의 올해 영업이익(실적)이 연초 세운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?”라는 질문에 “목표치 달성(54.4%)” > “목표치 미달(39.7%)” > “초과달성(5.9%)” 순으로, 연초 세운 목표치를 54.4이상이 달성할 것으로 응답했다.

- ◆ 이와 관련하여 만약 “목표치 미달의 경우 그 이유”를 묻는 질문에 “내수시장 둔화(41.5%)” > “최저임금, 주52시간 등 고용환경변화(22.0%)” > “美·中 무역분쟁 등 보호무역주의 심화”와 “환율·유가변동성 심화(9.8%)” > “中 경제둔화(4.9%)” 순으로 응답하였다.
- ◆ “경제주체인 기업과 정부, 국회의 경제 활성화 노력을 전반적으로 평가해보신다면(10점 만점)”의 질문에 “기업(6.5)” > “정부(5.3)” > “국회(3.0)” 순으로 조사되었다.
- ◆ “경제 활성화를 위해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정책과제 하나를 꼽는다면?” 이라는 질문에 “고용노동정책 탄력 적용(47.1%)” > “과격적 규제 개혁(26.5%)” > “자금조달 유연화(17.6%)” > “R&D 인력 지원 강화(8.8%)”순이었다. 이는 최저임금, 주52시간 정책 등 고용환경 변화에 기업들이 가장 민감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알 수 있다.